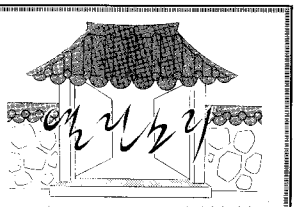


열린 소리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 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 : 200자 원고지 4~6매 하이텔(ID) : jang3
◇보냄곳 : 서울·수원〈본사편집실〉천리안(ID) : joo3

학교주변 신촌답습 소비풍조 반성해야

대학에 들어온지도 8개월이 지났다. 1년이 금방 지나가는 듯하다. 처음 회기역을 지나 회기 삼거리를 들어서며 느낀 것은 이것이었다.

"우와, 먹을 것이 참 많은 곳이구나!"

보이는 식당, 커피점, 호프집만 해도 수십 아니 백개도 훨씬 넘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회기 문화(문화라 지칭해도 될지 모르겠다)가 바뀌고 있다. 멀쩡한 가게가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내걸고 문을 닫는다. 그리고는 '축 개장'이라는 화환이 내붙는다. 화려한 조명, 아늑한 분위기,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새치장을 하고서 고향인들을 맞이한다. 더 깔끔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인간의 대부분은 외형상 맑고 깨끗하고 깔끔한 것을 정(正)으로 둔다. 또한 正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새 단장한 가게와 헌 가게를 비교하고 선택한다면 당연히 전자다. 물론, 情, 단골, 가격을 제외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한 관점에서라면 전자는 후자보다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솔직히 난 이러한 현실이 무섭게 다가온다. 그리고 겁이 난다. 가게가 하나씩 공사를 시작하면, 저곳은 무엇이 생길까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

회기의 밤거리는 밝 디딜 틈 하나 없다. 여러 종류의 패션의 물결이 넘나든다. 다양한 사람들이 활보한다. 누군가 지나가는 말로 한 마디 던진다.

"이제 신촌은 한물 갔어. 회기가 곧 바턴을 받을 거야."

난 이러한 현상이 싫다.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신문상에 활자화되어 나타날 것이다.

"회기, 제2의 압구정동"

"고향인, 오렌지족 대를 잇는다"

물론 믿을 수 없는 기사감일 것이다. 회기 거리가 바뀌어 감에 따라 우리의 주머니는 더욱 가벼워져 간다. 바닥이 깨끗해지고, 커튼이 하늘거리고, 화장실이 위생적이라는 것으로 가격표의 숫자는 높아간다. 물론 서비스는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러한 변화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자유주의 경제체계를 지향한다는 겉모습 속에서는 당연하다. 물론 가진 자들의 자유이기도 하다. 두려운 것은 이러한 변화의 결과다. 수수한 만큼 고향인의 정취가 배인 곳이 새 멱지로 가려지는 아쉬움. 과소비라 칭할 수 있을 우리의 생활수준과 사치풍조.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으리라 본다.

사라진 경희주점에서 소주잔 기울이며 라면전골과 닭도리탕을 먹던 춘삼월이 그리워 지지 않을까? 한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구 혜 민
〈정외 1〉

지역주민 끌어안을 문화공간 확충시급

대학이 가지는 여러가지 기능 중에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 하나가 지역사회에 대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이다.

경희 수원교정의 열악한 상황은 그간 지역사회의 문화공간으로 기능하기 보다 단순히 체육활동의 장소를 일정부분 제공했을 뿐이다. 대학이 그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그 도시의 중심 문화기능을 제공하는 문화전파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한 대학문화를 지역사회에 접목시킬 수 있는 공간 즉 상설 영화관이나, 소형 연극무대 등의 공연장이 필요하다. 소위 '대학도시'라고 불리는 외국의 여러대학의 경우 학교내에 극장과 상설 공연무대를 설치하고 좋은 영화와 연극 음악회 등을 일반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선진문화와 건강한 오락을 대중들과 공유하는 문화페시지의 역할을 독톡히 하고 있다. 그간 허허벌판에, 혹은 산중에 홀로있는 학교라고 해서 그 기능을 수행해 오지 못했다면 영통, 영덕지구에 대단위 택지개발사업과 더불어 입주할 10만여명의 시민들에게 경희정신의 하나인 '건설적인 협동'을 이루어낼 수 있는 준비를 이제는 시작해야 한다. 누군가 '대학인만을 위한 대학'이어야 한다고 한다면 이는 학문과 사상의 해방구이어야 할 대학에 대한 소부르조아적 관념일 뿐이다. 대학인이라는 기득권을 대학 안에서 누리기 보다, 시민의 삶을 대학안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진행될 학교의 발전계획에 지역주민과 학생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이 준비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공연이 학생들 속에서 매몰되고 무시되어지는 '문화적 불감증'의 오늘에 참다운 대학문화란 가장 민중적이고 식상하지 않고 신선한 것이다.

앞으로 노천극장이나 기타의 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갈때 10만의 영덕, 영통주민과 1만 경희인들을 생각해서 저렴하게 상시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영화관, 연극무대 등의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맹아적 태동기를 거치는 경희에 건강한 문화공간의 탄생을 바란다.

정 연 철
〈서반아어 4〉

화부생에 차별적용 대출기한 너무짧아

개가열람실이 보통 시중의 책대여점과 똑같은 것 같다. 학생들의 연체료가 천원이상을 냄들고 있어 그 연체료가 확대여점의 대여료와 맞먹는다.

도서관은 학생들의 지식을 쌓고, 가치관을 정립시키는 대잣대를 만들어 주는 책을 제공해 주는 곳이다. 한마디로 도서관은 학생들을 위한 곳이다. 특히 개가열람실은 학생들이 레포트를 쓰기 위해 참고도서를 찾는 곳으로 많이 애용한다.

그러나 대출기한이 1주일로 짧고 연체료도 하루에 50원으로 비싸다.

대학원생의 대출기한 20일에 비하면, 대학생의 대출기한은 짧다.

개가열람실에 대한 요구는 학생들이 책을 독점하게 하는 긴 대출기한이 아닌 대출기한의 4, 5일 연장뿐이다.

개가열람실이 상업적 목적이 아닌, 학생들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책 구실을 하기를 바란다.

양 지 현
〈정외 1〉

산대 단독후보 낙선 김수영양 결백증거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서는 학교측과 결탁하였다는 이유로 산대 학생장 후보 기호 2번 김수영(도예 3) 학우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였다. 그런후 15·16일 단독후보 찬반투표로 치루어진 산대 선거는 유권자 7백56명, 투표자 5백67명, 투표율 74%, 찬성 2백64표, 반대 5백60표, 기권 12표, 오차 1표로 단독후보 달락이라는 예상 외의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김수영 학우측이 이틀동안 벌인 후보자 자격박탈의 부당함에 대한 산대 학우 서명작업의 결과, 산대학우 1천52명(94년 10월20일 현재)중 5백60명의 과반수 이상이 서명을 하였다. 이것은 중선관위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준 1천 산대 학우들의 뚜렷한 의지 표출이었다.

만약 중선관위가 발표한대로 산대 김수영 학우가 학교측과 결탁한 것이 사실이라면 산대 학우들이 어떻게 단독후보에게 반대표를 던져 탈락이라는 결과를 안겨줄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현명한 산대 학우들이 중선관위의 잘못된 결정에 반대하고, 김수영 학우의 진실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제 산대는 다시 재선거에 들어가겠지만 김수영 학우의 아픈 상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라도 중선관위는 김수영 학우가 학교측과 결탁하였다는 사실이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고, 공개 사과문 발표를 통해 학교측의 프락치로 몰린 김수영 학우의 실추된 명예를 조속히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주 선 영
〈도예 3〉

학교위상 날로 실추 투자순위 설정 시급

복학한지 2년동안 학교를 돌려보며 적잖은 실망과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학교당국은 학교당국대로 총학은 총학대로 그 구심점을 잃고 마치 경희대라는 거대한 배가 돛을 달고 방향성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얼마전 '중앙일보'에 실린던 대학순위에서의 실망스러움은 비록 공정성의 결여가 있다고 해도 이미 경희대생 전체가 어느정도 인정하는 문제일 것이다. 한때 사학의 명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던 경희대의 위상이 이젠 땅바닥에 실추되어 버린 것을 이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학교측은 투자의 우선순위를 내실있게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먼저 교육부의 대학 평가 실시시 그때 그때의 연구 실적 위주의 양적 팽창에서 질적 향상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며, 낙후된 도서관의 현대화와 열람실의 확대 그리고 연구보조비의 지원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수, 학생, 교직원의 상위일체라는 사고의 시금한 전환이며, 총학생회에서도 집행부의 총학생회가 아닌 경희대 전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총학생회의 새로운 방향성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제 누군가가 경희대에 대해 물어본다면 교정이 아름다운 학교보다는 내실있고 조화있는 학교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 종 호
〈정외 4〉

개교 50주년 기념 발전기금 출연내역

심 태 식
〈전총장·후원회 고문〉

▲심태식(전경희대총장 및 후원회 고문) : 1천만원 ▲김동선(총무과 구매계) : 백만원 ▲김상일 : 8백만원 ▲황승연(사회대 사회학과 교수) : 2백만원 ▲장일순(사회대 사회학과 부교수) : 2백만원 ▲박중식(총무과 운전반) : 60만원 ▲고헌우외(경영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 54기) : 2백만원 ▲원승상(총무과 운전반) : 60만원 ▲신현식(연구처) : 1백만원 ▲이미숙(도서관 사서과) : 60만원 ▲이태숙(문리대 사학과 교수) : 2백만원 ▲이성렬(자연과학대학 화학과 부교수) : 1백20만원 ▲김윤희(의대 간호학과 교수) : 2백만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56기 일동 : 4백만원 ▲이호근(문리대 생물학과 조교수) : 1백20만원 ▲김기봉(경희고등학교 주임) : 3만원 ▲유영주(가정대학장) : 5백만원 ▲김진숙외 3인(경영대학원 경영4기, 세무3기 정지숙, 관광2기 정헌정, 무역2기 김기정) : 20만원 ▲김윤하(서울캠퍼스 관리직) : 50만원 ▲고준화(서울캠퍼스 관리직) : 50만원 ▲김용수(총무과 운전반)▲오은명(화학3)▲황수광(영문2)▲구성로(물리3)▲김라미(영문1)▲임정순(국문2)▲정익철(생물3)▲서문석(법학)▲김금하(신방)▲박정수(경영4)▲황상철(경영1)▲류혜선(영교2)▲김진주(식영3)▲최은영(가관2)▲송재민(의예1)▲변민정(한의예2)▲조유경(한의본3)▲박승미(한의본4)▲이건우(한의본1)▲최영진(한의예1)▲치대과대표(치본4)▲약대학생회장▲천정은(기약2)▲유정하(기약3)▲김상희(생약2)▲김민아(생약2)▲이경아(기아4)▲조현정(기약)▲김연진(기약)▲최민희(삼의원209)▲김은주(삼의원209)▲문재용(상의원402)▲김민형(삼의원508)

【수원캠퍼스】▲양수원(불문1)▲서광식(경영1)▲오상경(경영3)▲조준가(회계3)▲정경화(유전1)▲허준희(물리3)▲배준범(전자3)▲정현승(건축1)▲김윤경(전파1)▲박용상(화공3)▲곽형구(기계)▲김택현(섬유)▲이승복(전자4)▲김필곤(건축3)▲류형철(건축4)▲채문식(건축2)▲함경수(기계2)▲김양오(기계3)▲남영미(섬유1)▲안성호(전파2)▲이상훈(조경2)▲이경진(도예)▲문황운(체육2)▲박정숙(태권도3)▲김진경(애지원207)▲허수만(애지원)▲고창현(애지원)▲박서근(애지원)▲김태훈(애지원)

朔風

국민은 친구같은 대통령을 바란다

두 나라 대통령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한나라는 중남미에 있는 자그마한 소국으로 볼론 대치하고 있는 '적'도 없고 그래서 군대도 없는 코스타리카의 대통령이다.

우리나라 TV에 방송된 이 나라 대통령은 일요일 아침 주택성장관과 운전사겸 경호원 1명만을 대동한 채 워콘형 4륜구동 자동차 앞자리에 승차, 주택문제에 대한 시민들과의 토론회장으로 향한다. 토론회장에서는 시민들과 자신의 거리가 너무 멀다고 손수 의자를 옮기고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좋지 않습니까"라고 묻는다.

토론회가 끝난 후에는 거리에서 맥주를 마시는 시민들과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고, 국회에 들어갈 때는 경호차량이 규정에 없다고 국회 진입을 저지하는 경비원과 다투기도 하지만 곧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원칙에 따르는 것은 좋은 일이냐"며 화해하기도 한다.

비행기를 타고 지방에 가야 하는데 이국의 취재원이 동승을 요청하자 경호원들을 모두 공항에서 기다리게 하고 비행기에 오르는 대통령.

방송의 제목은 "친구 같은 대통령"이었다.

또 한나라의 대통령 이야기를 하자.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으로 주변에는 강국들-탐욕스러운-만 둘러싸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다. 물론 60만 강군이 지키고 있는 나라의 군통수권자이기도 하고 30년 군정을 종식시키고 취임한 '문민'대통령이기도 하다.

그는 취임초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국민들에게 '고통의 분담'을 호소했고, 곧이어 방송에는 점심으로 칼국수를 먹는 대통령의 모습과 사정에 대한 뉴스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행기가 떨어졌다. 철로가 꺼져 기차가 중앙장처럼 구겨지고, 배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으며, 지하철은 달리다 멈추었고, 결국 다리까지 주저 앉았다.

그러나 국민들은 잘 참았다.

"모든 것은 지난 군정시대의 잘못들이 이제사 곪아서 터지는 것"이라며 묵묵히 복구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기상대 설립후 처음이라는 폭열에 한해도 견뎌내고 경기도 점차 활황국면을 접어들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대통령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한강다리가 무너진 다음에 그는 유가족을 찾는 대신 북에서 40여년만에 귀환한 조창호 소위를 찾아갔다. 조창호 소위의 귀환에 얽힌 얘기는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충주호에서 유람선이 불타고 있을 때는 전국체전에 참가했다.

'만약 코스타리카의 대통령이 그같은 일을 당했다면 그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라는 생각은 접어두기로 하자. '위대한 한민족'의 대통령과 그런 '소국'의 대통령을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희생자들이 안치되어 있는 영안실로 찾아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전국민과 같이 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홍분한 유가족들이 대통령에게 울며 항의하며 멱살을 붙잡는다 해도 말이다.

대전에는 멀지도 않은 충주호에서 그런 참사가 일어났다면 당연히 달려가서 국민들과 같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고 생각한다. 건청한 경호원들로 하여금 구호작업을 도와주도록 하고 자신도 부상자들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APEC도, 호주순방도, 세계화도 좋지만 무너지고 찢어진 국민들의 마음을 쓰다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진정한 '고통의 분담'이라고, 진정 '위대한 한민족' 대통령다운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대국민 사과만 떠들지 말고 12.12 같은 문제를 두고 외국으로 도망치지 말고 '좀더 당당히 국민 앞에 서서 의연히 말하는' 상도동의 한 소녀가 썼듯이 '친구같은 대통령'이 되어주었으면 한다.

〈根〉

알림터

취업안내

취업정보실로 문의

【수원캠퍼스】◆대한 무역진흥공사=무역, 경영, 회계, 중어, 불어, 독어, 노어, 서어, 11월 25일까지 991-4156

◆(주)국제화재 해상보험=수학, 통계, 전산, 11월 23일까지 753-1101

◆삼정기업(주)=상경, 화학, 화공, 기계, 11월 30일까지 552-2331

◆동방페레그린 증권=전공불문, 11월 26일까지 399-7000

◆(주)삼현=회계전공 11월 23일까지 277-5271

◆한국금융공업동조합=영어 독해 및 회화가능자, 11월 30일까지 783-1711

◆(주)국제상사=산업디자인, 섬유공, 경영, 무역, 11월 26일까지 799-7622

◆크라운베이커리=식품관련, 산업공, 전산, 건축, 기계, 12월 2일까지 278-2631

◆학교법인 육하학원=전산과, 산업디자인 12월 2일까지 428-0732

등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김수진(국문91)▲라유진(생물3)▲박미경(생물90)▲김상헌(영문2)▲황은진(국문)▲오은명(화학3)▲황수광(영문2)▲구성로(물리3)▲김라미(영문1)▲임정순(국문2)▲정익철(생물3)▲서문석(법학)▲김금하(신방)▲박정수(경영4)▲황상철(경영1)▲류혜선(영교2)▲김진주(식영3)▲최은영(가관2)▲송재민(의예1)▲변민정(한의예2)▲조유경(한의본3)▲박승미(한의본4)▲이건우(한의본1)▲최영진(한의예1)▲치대과대표(치본4)▲약대학생회장▲천정은(기약2)▲유정하(기약3)▲김상희(생약2)▲김민아(생약2)▲이경아(기아4)▲조현정(기약)▲김연진(기약)▲최민희(삼의원209)▲김은주(삼의원209)▲문재용(상의원402)▲김민형(삼의원508)

【수원캠퍼스】▲양수원(불문1)▲서광식(경영1)▲오상경(경영3)▲조준가(회계3)▲정경화(유전1)▲허준희(물리3)▲배준범(전자3)▲정현승(건축1)▲김윤경(전파1)▲박용상(화공3)▲곽형구(기계)▲김택현(섬유)▲이승복(전자4)▲김필곤(건축3)▲류형철(건축4)▲채문식(건축2)▲함경수(기계2)▲김양오(기계3)▲남영미(섬유1)▲안성호(전파2)▲이상훈(조경2)▲이경진(도예)▲문황운(체육2)▲박정숙(태권도3)▲김진경(애지원207)▲허수만(애지원)▲고창현(애지원)▲박서근(애지원)▲김태훈(애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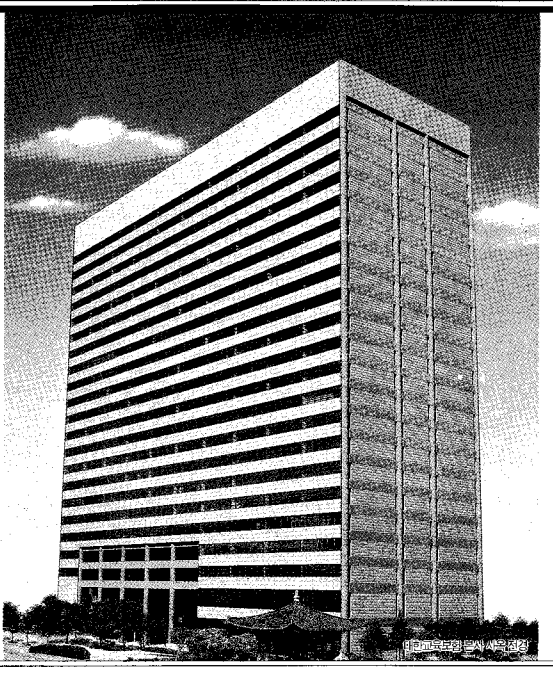
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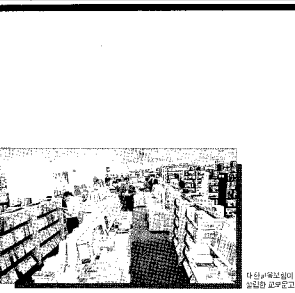
습득자 편집실로

【서울캠퍼스】◇빨간색지갑=▲김현신(교육대학원 미술교육)=11월 9일 오후1시 본관 뒤

【수원캠퍼스】◇전자계산기=▲이형탁(화공·91)

21세기 종합금융그룹—— 대한교육보험이 선도합니다


대한교육보험 본사 사옥 전경


대한교육보험이 설립한 교육문고 전경

1958년 국민교육진흥과 민족자본형성을
창립이념으로 출범한 대한교육보험—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알찬 경영으로
한국보험사의 신기원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최초로 교육보험제도 창안,
국내최초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100% 적립,
계약자 1인당 최고의 이익배당금 적립,
94년 국내보험회사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회사로 선정,
11조원에 달하는 튼튼한 보험자산 —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기반이 아닙니다.

이제 대한교육보험은 금융국제화시대를 맞아
능력있는 젊은 인재와 함께 21세기 종합금융그룹을
힘차게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교육보험

대한교육보험이 설립한 회사 : (주) 교보문고 / (주) 교보증권 / 교보투자자문(주) / (주) 교보실업
대한교육보험이 설립한 재단 : 대산재단 / 대산농촌문화재단